

가짜벌꿀 유통업소 6개사 검찰 조사

- 일부 업체 제조꿀 사실 알고도 유통
- 벌꿀 신뢰도 하락으로 소비 저하 우려돼

최근 검찰은 인버타제를 이용한 가짜벌꿀 제조업자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시킨 6개 유통업소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가짜벌꿀의 유통을 막고자 가짜벌꿀 제조에 사용되는 인버타제 효소와 사탕무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가짜벌꿀 제조업자를 적발,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현재 조사중인 업체 가운데 일부는 제조꿀임을 알고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업체들은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식약청과 함께 가짜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양봉협회와 농림부, 소비자단체와 함께 벌꿀정화에 앞장서고자 관세청의 협조로 가짜꿀 제조에 사용되는 인버타제와 무설탕의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벌꿀 검사방법으로는 가짜벌꿀과 일반 벌꿀을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양봉협회는 “불순한 의도의 사람들로 벌꿀소비 저하가 우려돼 선량한 양봉농가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벌꿀 순도분석법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좀 더 신속하게 가짜벌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봉**